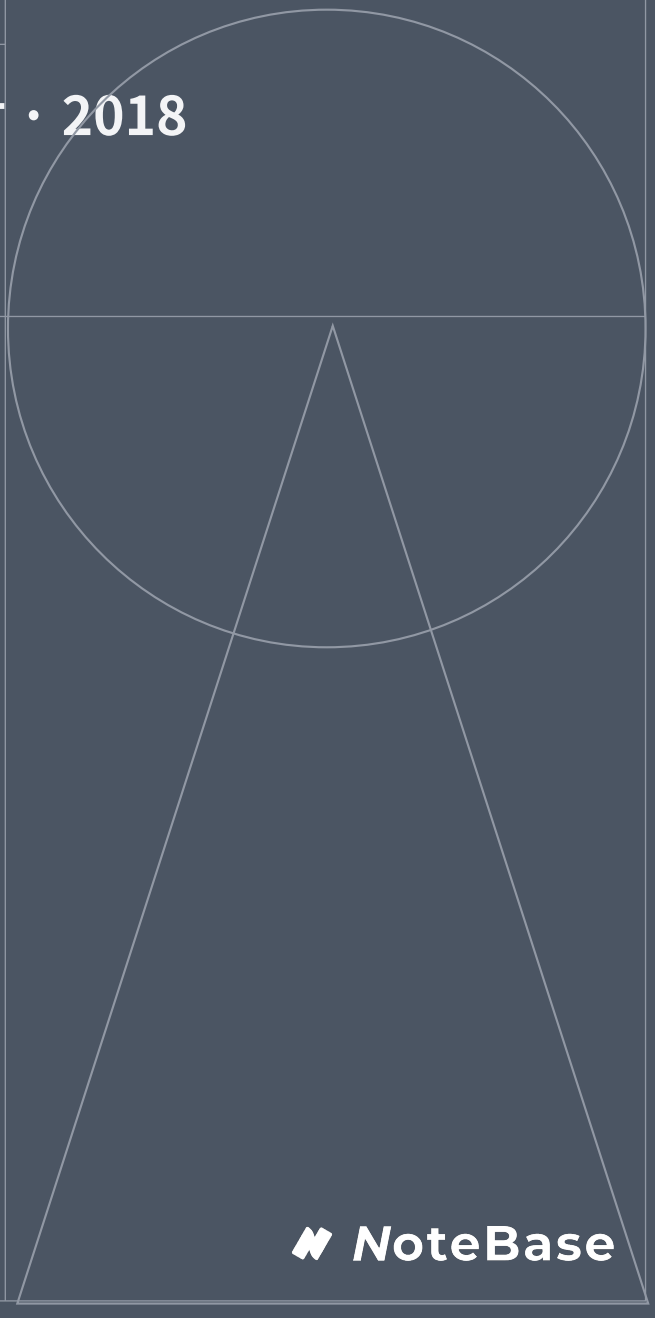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18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18

문 1.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이 본원통화와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원통화와 통화량 모두 증가한다.

② 본원통화와 통화량 모두 감소한다.

③ 본원통화는 증가하고 통화량은 감소한다.

④ 본원통화는 감소하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개시장매입이 본원통화와 통화량에 어떤 방향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본원통화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이루어진 중앙은행 화폐이다.
통화량은 민간이 실제로 보유하는 예금통화와 현금의 총량으로, 본원통화가 늘면 신용창조를 통해 함께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공개시장매입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지급수단을 공급하는 조치이므로 본원통화를 증가시키고 통화량도 증가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이나 민간의 현금이 늘어나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이 본원통화 증가는 예금창출을 통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
② X: 틀린 표현은 "모두 감소한다"이다. 공개시장매입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조치이므로 올바르게는 "본원통화와 통화량 모두 증가한다"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통화량은 감소한다"이다.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예금통화 창출이 확대되어 통화량도 증가하므로 올바르게는 "본원통화는 증가하고 통화량도 증가한다"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본원통화는 감소하고"이다. 공개시장매입은 중앙은행 화폐를 시중에 푸는 조치이므로 본원통화가 감소할 수 없고, 올바르게는 "본원통화는 증가하고 통화량도 증가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공개시장매입과 공개시장매각의 방향을 뒤집어 외우면 ②와 ④에 끌리기 쉽다. 또 본원통화만 직접 늘고 통화량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③에 흔들리는데, 이 문항은 본원통화 증가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는 기본 방향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개시장매입은 중앙은행이 돈을 주고 채권을 사는 행위이므로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원통화는 증가하고, 그 결과 통화량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개시장매입은 돈을 푸는 정책이므로 본원통화 증가, 통화량 증가이다.

NoteBase

문 2. 다음은 어느 은행의 대차대조표이다. 이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전부 대출할 때, 은행시스템 전체를 통해 최대로 증가할 수 있는 통화량의 크기는? (단, 법정지급준비율은 20%이며 현금통화비율은 0%이다)

자산(억 원)		부채(억 원)	
지급준비금	600	예 금	2,000
대 출	1,400		

① 120억 원

② 400억 원

③ 1,000억 원

④ 2,000억 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초과지급준비금과 통화승수를 이용해 은행시스템 전체의 최대 통화량 증가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예금 2,000억 원, 지급준비금 600억 원, 법정지급준비율 20%, 현금통화비율 0%
- 구해야 할 값: 초과지급준비금을 모두 대출할 때 최대 통화량 증가액
- 주의할 조건: 현금통화비율이 0%이므로 새로 대출된 자금이 모두 다시 예금으로 돌아온다.

사용할 공식

초과지급준비금 = 실제 지급준비금 - 필요지급준비금
필요지급준비금 = 법정지급준비율 × 예금
통화승수 = 1 / 지급준비율
최대 통화량 증가액 = 초과지급준비금 × 통화승수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한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은행시스템 전체에서 반복 예금·대출을 거쳐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묻고, 현금통화비율이 0%이므로 단순 통화승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필요지급준비금은 0.2 × 2,000 = 400억 원이다.
2. 초과지급준비금은 600 − 400 = 200억 원이다.
3. 통화승수는 1/0.2 = 5이다.
4. 최대 통화량 증가액은 200 × 5 = 1,000억 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20억 원은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초과지급준비금 200억 원에 승수 5를 적용해야 하므로 증가액은 12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이다.
② X: 400억 원은 필요지급준비금 규모일 뿐 최대 증가액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증가액을 400억 원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필요지급준비금은 400억 원이고 최대 통화량 증가액은 1,000억 원이다.
③ O: 초과지급준비금 200억 원이 승수 5배만큼 예금창조를 일으키므로 최대 통화량 증가액은 1,000억 원이다.
④ X: 2,000억 원은 현재 예금 총액이지 추가로 늘어나는 통화량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기존 예금 잔액을 증가액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현재 예금 2,000억 원은 준비금 600억 원으로 최대 3,000억 원까지 뒷받침될 수 있으므로 추가 증가액은 1,000억 원이다.

오답 포인트

필요지급준비금 400억 원과 초과지급준비금 200억 원을 구분하지 못하면 ②로 흐르기 쉽다. 또 현재 예금 총액 2,000억 원이라는 재고 개념과 추가 증가액이라는 흐름 개념을 섞으면 ④로 흐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은행 대차대조표 계산형은 현재 예금으로 필요지급준비금을 먼저 구하고, 실제 준비금에서 이를 빼 초과지급준비금을 찾은 뒤, 현금통화비율이 0%이면 승수 1/*rr*를 곱해 최대 증가액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최대 통화량 증가액은 초과지급준비금 × 승수이다. 현금통화비율이 0%이면 승수는 1 / 지급준비율이다.

NoteBase

문 3. A국에서 어느 재화의 수요곡선은 $Q_d = 280 - 3P$이고, 공급곡선은 $Q_s = 10 + 7P$이다. A국 정부는 이 재화의 가격상한을 20원으로 설정하였고, 이 재화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추고자 한다. 이 조치에 따른 단위당 보조금은? (단, P는 이 재화의 단위당 가격이다)

① 10원

② 12원

③ 14원

④ 16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상한 아래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이 다를 때, 생산자 보조금으로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추는 계산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곡선은 $Q_d = 280 - 3P$, 공급곡선은 $Q_s = 10 + 7P$이다.
구해야 할 값: 가격상한이 2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단위당 보조금이다.
주의할 조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20원이지만, 생산자는 보조금만큼 더 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을 결정한다.

사용할 공식

수요량은 소비자가격 P_c를 넣어 $Q_d = 280 - 3P_c$로 구하고, 보조금이 s일 때 공급량은 생산자가격 $P_p = P_c + s$를 넣어 $Q_s = 10 + 7(P_c + s)$로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가격상한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20원으로 묶고, 생산자 보조금은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을 높여 공급을 늘리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가격상한 20원에서 수요량은 $Q_d = 280 - 3 \times 20 = 220$이다.
2. 보조금을 s라 두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20 + s$원이므로 공급량은 $Q_s = 10 + 7(20 + s) = 150 + 7s$이다.
3.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두면 $150 + 7s = 220$이다.
4. 따라서 $7s = 70$, $s = 1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 보조금은 10원이다. 이때 공급량은 $Q_s = 10 + 7(20 + 10) = 220$이 되어 수요량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12원을 주면 공급량은 $Q_s = 10 + 7(32) = 234$가 되어 수요량 220보다 14만큼 많다. 틀린 수치 → 올바르게는 10원이다.
③ X: 14원을 주면 공급량은 $Q_s = 10 + 7(34) = 248$가 되어 초과공급이 더 커진다. 틀린 수치 → 올바르게는 10원이다.
④ X: 16원을 주면 공급량은 $Q_s = 10 + 7(36) = 262$가 되어 수요량과의 차이가 가장 커진다. 틀린 수치 → 올바르게는 10원이다.

오답 포인트

가격상한 문제에서 수요는 소비자가격 20원으로 계산하고, 공급은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 $20 + s$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가격상한 20원만 공급식에 그대로 넣거나, 보조금이 붙는 대상을 소비자로 착각하면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통제와 보조금이 함께 나오면 먼저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을 분리한 뒤, 수요는 소비자가격으로 계산하고 공급은 생산자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다음 부족분을 공급기울기로 나누어 필요한 보조금을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가격상한+생산자보조금 문제는 수요는 소비자가격, 공급은 생산자가격으로 넣는 구조이다.

NoteBase

문 4. 다음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화량 변화 → 이자율 변화 → 투자 변화 → 총수요 변화 → 국민소득 변화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정책효과가 크다.

②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정책효과가 작다.

③ IS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정책효과가 크다.

④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책효과가 작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화량 증가가 이자율, 투자, 총수요,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와 그 효과를 키우거나 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화정책 효과는 통화량 증가로 LM곡선이 우측 이동할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로 본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이 평평해져 이자율 하락폭이 작아지고 정책효과가 약해진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이자율 하락이 투자 증가로 더 크게 이어져 IS곡선이 평평해지고 정책효과가 커진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효과가 커져 총수요와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확대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이자율이 조금만 변해도 화폐수요가 크게 변하므로 LM곡선이 수평에 가까워지고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하락폭과 소득 증가폭이 작아진다.
틀린 표현은 "정책효과가 크다"이다. 올바르게는 "정책효과가 작다"이다.

② X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이자율 하락이 투자 증가로 크게 이어지므로 총수요와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커진다.
틀린 표현은 "정책효과가 작다"이다. 올바르게는 "정책효과가 크다"이다.

③ O
IS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즉 투자와 총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할수록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이자율 하락이 큰 투자 증가와 소득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책효과가 크다.

④ X
한계소비성향이 크면 승수 $1/(1-c)$가 커져 투자 증가가 더 큰 총수요 증가와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틀린 표현은 "정책효과가 작다"이다. 올바르게는 "정책효과가 크다"이다.

오답 포인트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과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모두 "클수록 효과가 크다" 또는 "클수록 효과가 작다"로 한 방향으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증가는 LM을 평평하게 만들어 통화정책을 약화시키지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증가는 IS를 평평하게 만들어 통화정책을 강화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정책 문제는 먼저 통화량 증가가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를 늘려 소득을 키운다는 경로를 확인한다. 그다음 이자율 변화가 투자로 얼마나 강하게 전달되는지, 승수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LM이 너무 평평해져 이자율이 잘 안 내려가는지를 기준으로 효과의 크기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통화정책은 IS가 평평할수록 강하고, LM이 평평할수록 약하다.

NoteBase

문 5. 甲의 효용함수는 $u(x)=\sqrt{x}$로 표현된다. 甲은 현재 소득이 0원이며, $\frac{1}{3}$의 당첨 확률로 상금 100원을 받는 복권을 갖고 있다. 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에 당첨될 확률을 $\frac{2}{3}$로 높일 수 있을 때, 甲이 포기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단, x는 원으로 표시된 소득이다)

① $\frac{100}{3}$원

② 50원

③ $\frac{200}{3}$원

④ 75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대효용을 비교하여 당첨확률 상승과 상금 감소 사이의 무차별 조건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존 복권의 기대효용은 $\frac{1}{3}\sqrt{100}+\frac{2}{3}\sqrt{0}$이다.
상금 일부를 a원 포기한 뒤의 복권 기대효용은 $\frac{2}{3}\sqrt{100-a}+\frac{1}{3}\sqrt{0}$이다.
최대 포기금액은 두 복권 사이에서 무차별이 되는 a값이다.

사용할 공식

기대효용은 $EU=\sum p_i u(x_i)$이다.
기존 복권은 $EU_0=\frac{1}{3}\sqrt{100}=\frac{10}{3}$이고, 변경 후 복권은 $EU_1=\frac{2}{3}\sqrt{100-a}$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효용함수가 $u(x)=\sqrt{x}$로 오목하므로 기대금액이 아니라 기대효용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최대 포기금액 a는 무차별 조건 $EU_0=EU_1$을 만족한다.
2. $\frac{2}{3}\sqrt{100-a}=\frac{10}{3}$이다.
3. $2\sqrt{100-a}=10\Rightarrow\sqrt{100-a}=5$이다.
4. $100-a=25\Rightarrow a=75$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frac{100}{3}$원은 기존 복권의 기대금액 $100 \times \frac{1}{3}$을 계산한 값일 뿐이다. 이 문제는 기대금액이 아니라 기대효용을 같게 두어야 하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포기 가능 금액을 $\frac{100}{3}$원으로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75원이다.
② X: 50원은 당첨확률이 두 배가 되었으니 상금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선형적으로 본 값이다. 그러나 $u(x) = \sqrt{x}$에서는 확률 변화와 상금 변화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포기 가능 금액을 50원으로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75원이다.
③ X: $\frac{200}{3}$원을 포기하면 새 복권의 기대효용은 $\frac{2}{3}\sqrt{\frac{100}{3}}$이 되어 기존 기대효용 $\frac{10}{3}$과 같지 않다. 기대효용 등식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포기 가능 금액을 $\frac{200}{3}$원으로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75원이다.
④ O: 포기금액을 a라 두고 $\frac{2}{3}\sqrt{100 - a} = \frac{10}{3}$을 풀면 $a = 75$가 된다. 따라서 당첨확률을 $\frac{2}{3}$로 높이기 위해 최대 75원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

오답 포인트

당첨확률이 커졌다고 해서 기대금액만 맞추거나 상금을 비례적으로 줄이면 오답이 된다. 오목한 효용함수에서는 위험회피가 반영되므로 반드시 기대효용을 직접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함수가 주어지면 먼저 각 대안의 기대효용식을 세우고, 무차별 문항이면 두 기대효용을 같게 둔 뒤 미지수를 푼다. 확률 변화와 금액 변화를 기대값만으로 바로 맞추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

암기 포인트

위험회피형 효용에서는 기대금액이 아니라 기대효용을 같게 두는 것이 기준이다.

NoteBase

문 6. 두 명의 주민이 사는 어느 마을에서 가로등에 대한 개별 주민의 수요함수는 $P = 10 - Q$로 표현되며, 주민 간에 동일하다. 가로등 설치에 따르는 한계비용이 6일 때, 이 마을에 설치할 가로등의 적정 수량은? (단, Q는 가로등의 수량이다)

① 4

② 5

③ 6

④ 7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재인 가로등의 사회적 최적공급량을 구하기 위해 개별 한계편익을 수직합하는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각 주민의 개별 수요함수는 $P = 10 - Q$이다.
- 주민 수는 2명이다.
- 가로등 설치의 한계비용은 6이다.

구해야 할 값:
- 마을에 설치할 가로등의 적정 수량 Q이다.

주의할 조건:
- 가로등은 공공재이므로 두 주민의 한계편익을 같은 Q에서 수직합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공공재의 최적공급 조건은 사회적 한계편익 SMB와 한계비용 MC가 같아지는 점이다.

$SMB = MB_1 + MB_2 = (10 - Q) + (10 - Q) = 20 - 2Q$

$SMB = MC$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가로등은 한 번 설치하면 두 주민이 동시에 소비하는 공공재이므로 개별 수요를 가로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량에서 가격축 방향으로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각 주민의 한계편익은 $MB_1 = 10 - Q, MB_2 = 10 - Q$이다.
2. 사회적 한계편익은 $SMB = (10 - Q) + (10 - Q) = 20 - 2Q$이다.
3. 최적공급 조건 $20 - 2Q = 6$을 세우면 $2Q = 14, Q = 7$이다.

선지 판단

① X
- $Q = 4$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20 - 2 \times 4 = 12$이다. 한계비용 6보다 크므로 가로등을 더 설치해야 한다.
- 틀린 표현은 적정 수량을 4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적정 수량은 7이다.

② X
- $Q = 5$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20 - 2 \times 5 = 10$이다. 여전히 한계비용 6보다 크므로 공급이 부족하다.
- 틀린 표현은 적정 수량을 5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적정 수량은 7이다.

③ X
- $Q = 6$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20 - 2 \times 6 = 8$이다. 아직 한계비용 6보다 크므로 1단위 더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틀린 표현은 적정 수량을 6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적정 수량은 7이다.

④ O
- $Q = 7$이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20 - 2 \times 7 = 6$이 되어 한계비용 6과 정확히 일치한다.
- 공공재의 최적공급 조건을 만족하므로 7이 적정 수량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개별 수요함수 $P = 10 - Q$ 하나만 보고 $10 - Q = 6$으로 계산해 $Q = 4$를 고르는 점이다. 공공재는 개인별 한계편익을 수직합해야 하므로 4는 사적재 계산이고, 이 문항에서는 두 주민의 편익을 합친 $20 - 2Q$를 써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 수량 문제는 먼저 공공재인지 확인한 뒤 개별 수요를 같은 수량에서 수직합해 사회적 한계편익을 만들고, 그 값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어 Q를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수요의 수직합, 사적재는 수요의 수평합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7. 다음은 A국 중앙은행이 따르는 테일러준칙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4%이고 GDP갭이 1%일 때, A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r은 중앙은행의 목표 이자율, π는 인플레이션율, Y^*는 잠재GDP, Y는 실질 GDP이다)

$$r = 0.03 + \frac{1}{4}(\pi - 0.02) - \frac{3}{4}\frac{Y^* - Y}{Y^*}$$

① 목표 이자율은 균형 이자율보다 높다.

②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이다.

③ 균형 이자율은 3%이다.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갭 1%p 증가에 대해 목표 이자율은 0.25%p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테일러준칙에 현재 인플레이션율과 GDP갭을 대입해 목표 이자율을 계산하고, 상수항과 계수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인플레이션율 4%, GDP갭 1%
구해야 할 값: 목표 이자율 r과 각 선지의 진위
주의할 조건: 이 문항의 GDP갭은 식에 적힌 $\frac{Y^* - Y}{Y^*}$ 값 1%로 해석한다.

사용할 공식

$r = 0.03 + \frac{1}{4}(\pi - 0.02) - \frac{3}{4}\left(\frac{Y^* - Y}{Y^*}\right)$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중앙은행의 테일러준칙 자체를 제시했고 현재 인플레이션율과 GDP갭이 주어졌으므로, 식에 직접 대입하면 목표 이자율과 각 선지의 진위를 함께 판단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인플레이션 편차는 $0.04 - 0.02 = 0.02$이므로, 이 항의 기여분은 $\frac{1}{4} \times 0.02 = 0.005$이다.
2. GDP갭 항은 $\frac{Y^* - Y}{Y^*} = 0.01$이므로, 이 항의 기여분은 $-\frac{3}{4} \times 0.01 = -0.0075$이다.
3. 따라서 $r = 0.03 + 0.005 - 0.0075 = 0.0275$이므로 목표 이자율은 2.75%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된 목표 이자율은 2.75%이고, 균형 이자율은 식의 상수항인 3%이다. 따라서 목표 이자율은 균형 이자율보다 높지 않다. 틀린 표현은 "높다"이고, 올바르게는 "목표 이자율은 균형 이자율보다 낮다"이다.
② O: 식에서 인플레이션 편차를 $\pi - 0.02$로 두고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이다.
③ O: 인플레이션이 목표와 같고 GDP갭이 0이면 두 편차항이 모두 0이 되어 $r = 0.03$만 남는다. 따라서 균형 이자율은 3%이다.
④ O: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π의 계수는 $\frac{1}{4}$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이 1%p 오를 때 목표 이자율은 0.25%p 오른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GDP갭의 부호이다. 일반적으로 익숙한 $\frac{Y - Y^*}{Y^*}$ 형태로 읽으면 계산값이 뒤집히지만, 문제는 $\frac{Y^* - Y}{Y^*}$를 직접 제시했다. 이 부호를 놓치면 ①의 판단이 반대로 바뀐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테일러준칙 문항은 먼저 상수항으로 균형 이자율을 읽고, π-목표 인플레이션 형태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을 확인한 다음, 각 편차항의 부호와 계수를 보고 현재값을 대입해 최종 r를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상수항은 균형 이자율, 0.02는 목표 인플레이션, 계수는 반응 강도이다. 이 문항에서는 GDP갭 항의 부호가 정답을 가른다.

NoteBase

문 8. 변동환율제하에서의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국제수지표에서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오차와 누락은 모두 0과 같다)

ㄱ. 국민소득이 국내총지출보다 크면 경상수지는 적자이다.
ㄴ. 국민저축이 국내투자보다 작으면 경상수지는 적자이다.
ㄷ. 순자본유출이 정(+)이면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방경제의 핵심 항등식인 경상수지 = 국민소득-국내총지출 = 국민저축-국내투자 = 순자본유출의 방향을 정확히 연결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재화·서비스와 소득을 해외와 거래한 순액이며, 이 문제의 가정에서는
$CA = Y - (C + I + G) = S - I = NCO$로 정리된다.
국민소득이 국내총지출보다 크면 국내에서 쓴 것보다 벌어들인 것이 많으므로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국민저축이 국내투자보다 작으면 부족한 투자재원을 해외자본으로 메워야 하므로 경상수지는 적자이다.
순자본유출이 정(+)이면 국내 자금이 해외로 순유출된 것이므로 그만큼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만 옳다고 본 선택지인데, ㄱ 자체가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ㄱ의 틀린 표현은 [국민소득이 국내총지출보다 크면 경상수지는 적자이다]라는 부분이다.
- 실제로는 $CA = Y - (C + I + G)$이므로 국민소득이 국내총지출보다 크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이다.

② X
- ②는 ㄴ만 옳다고 본 선택지인데, ㄴ은 맞지만 ㄷ도 맞으므로 오답이다.
- 틀린 부분은 [ㄴ만 고른 것]이다.
- 실제로는 $S - I = CA$, $NCO = CA$이므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③ X
- ③은 ㄱ, ㄷ을 옳다고 본 선택지인데, ㄷ은 맞지만 ㄱ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 틀린 부분은 [ㄱ을 포함한 것]이다.
- 실제로는 ㄱ을 빼고 ㄴ, ㄷ을 골라야 한다. 국민소득이 국내총지출보다 크면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④ O
- ④는 ㄴ, ㄷ을 고른 선택지로 정답이다.
- ㄴ은 국민저축이 국내투자보다 작으면 $S - I < 0$이므로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뜻이어서 옳다.
- ㄷ은 순자본유출이 정(+)이면 $NCO > 0$, 따라서 $CA > 0$가 되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뜻이어서 옳다.

오답 포인트

경상수지를 [소득-지출], [저축-투자], [순자본유출]과 같은 방향으로 보지 않고 각각 따로 외우면 부호를 자주 뒤집는다. 특히 [국민소득이 더 크면 적자]처럼 흑자와 적자의 방향을 반대로 잡거나, 순자본유출의 정(+)을 자본유입과 혼동하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먼저 $CA = Y - (C + I + G) = S - I = NCO$를 한 줄로 놓고 각 항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본다. 소득이 지출보다 크면 흑자, 저축이 투자보다 작으면 적자, 순자본유출이 정(+)이면 흑자라는 같은 방향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경상수지는 $Y - A = S - I = NCO$이다. 많이 벌고 덜 쓰면 흑자, $S < I$면 적자, $NCO > 0$면 흑자이다.

NoteBase

문 9. A국에서 어느 재화의 국내 수요곡선과 국내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A국이 자유무역을 허용하여 이 재화가 세계시장 가격 $P_w = 6$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자. 이때, 단위당 2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의 국내시장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이 재화의 가격이며, A국의 수입관세 부과는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국내 수요곡선: $Q_d = 16 - P$
국내 공급곡선: $Q_s = -6 + P$

① 소비자잉여는 18만큼 감소한다.

② 생산자잉여는 2만큼 증가한다.

③ 수요량은 4만큼 감소한다.

④ 사회후생은 4만큼 감소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유무역과 관세 부과 후의 국내가격, 수요량, 공급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사회후생 변화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국내 수요곡선은 $Q_d = 16 - P$이다.
국내 공급곡선은 $Q_s = -6 + P$이다.
자유무역 세계가격은 $P_w = 6$이다.
관세는 단위당 2이다.

구해야 할 값:
관세 부과 전후의 각 잉여와 수요량 변화이다.

주의할 조건:
소국 가정이므로 관세 부과가 세계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가격은 $6 \rightarrow 8$로 오른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18

사용할 공식

수요량과 공급량은 각 곡선에 가격을 대입해 구한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와 가격선 위의 삼각형 면적이다.
생산자잉여는 가격선 위와 공급곡선 위의 삼각형 면적이다.
사회후생 변화는 소비자잉여 변화 + 생산자잉여 변화 + 관세수입으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관세는 국내가격을 올려 거래량과 수입량을 바꾸고, 그 결과 각 경제주체의 잉여와 후생이 면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자유무역일 때 $P=6$이므로 $Q_d=16-6=10$, $Q_s=-6+6=0$, 수입량은 $10-0=10$이다.
2. 관세 2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은 $P=8$이므로 $Q_d=16-8=8$, $Q_s=-6+8=2$, 수입량은 $8-2=6$이다.
3. 소비자잉여는 자유무역 때 $\frac{1}{2}\times(16-6)\times10=50$, 관세 후 $\frac{1}{2}\times(16-8)\times8=32$이므로 18 감소한다.
4. 생산자잉여는 자유무역 때 0, 관세 후 $\frac{1}{2}\times(8-6)\times2=2$이므로 2 증가한다.
5. 관세수입은 $2\times6=12$이다. 전체 사회후생 변화는 $-18+2+12=-4$이므로 4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비자잉여는 50에서 32로 줄어 18만큼 감소한다.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잉여가 크게 줄어드는 계산이 맞다.

② O
생산자잉여는 0에서 2로 늘어 2만큼 증가한다. 국내가격이 6에서 8로 올라 국내 생산자가 이익을 본다.

③ X
수요량은 10에서 8로 변하므로 2만큼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4만큼 감소'이고, 올바르게는 '수요량은 2만큼 감소한다'이다.

④ O
사회후생은 소비자잉여 18 감소, 생산자잉여 2 증가, 관세수입 12 증가를 합치면 총 4 감소한다. 따라서 사회후생은 4만큼 감소한다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관세가 2이므로 수요량도 4 줄어든다고 성급히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수요량 변화는 관세액 자체가 아니라 가격 변화분을 수요곡선 $Q_d=16-P$에 대입해 전후 수량을 직접 비교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세 계산형 문제는 먼저 소국 여부를 확인해 국내가격 변화를 정한 뒤, 그 가격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 각각 대입해 전후 수량을 구하고, 마지막에 잉여와 관세수입을 면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소국의 관세는 국내가격을 관세만큼 올리고, 수요량은 수요곡선에 새 가격을 대입해 전후 차이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0. 어느 공항의 이윤함수는 $28x - x^2$이고, 공항 근처에 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의 이윤함수는 $20y - y^2 - xy$이다. 만일 한 기업이 공항과 주택개발업체를 모두 소유한다면,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택의 수(a)는? 한편, 공항과 주택개발업체를 서로 다른 기업이 소유한다면 공항은 주택개발업체에게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xy를 지불해야 한다. 이때 주택개발업체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택의 수(b)는? (단, x는 하루에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수이며, y는 주택개발업체가 건설할 주택의 수이다)

① a: 4, b: 4

② a: 4, b: 10

③ a: 6, b: 4

④ a: 6, b: 1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부불경제가 있을 때 통합 소유의 총이윤 극대화와 보상지급 후 개발업체의 순이윤 극대화를 구분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공항 이윤함수 $28x - x^2$, 주택개발업체 이윤함수 $20y - y^2 - xy$이다.
구해야 할 값은 통합 소유일 때의 주택 수 a와 분리 소유에 보상금 xy를 지급할 때 개발업체의 주택 수 b이다.
주의할 조건은 통합 소유에서는 두 기업의 이윤을 합쳐서 x, y를 동시에 정하고, 분리 소유에서는 개발업체의 순이윤에 보상금이 더해져 $-xy$가 상쇄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통합 소유에서는 총이윤 $\Pi = 28x - x^2 + 20y - y^2 - xy$를 최대화한다.
분리 소유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개발업체의 순이윤은 $\pi_d = 20y - y^2 - xy + xy = 20y - y^2$가 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각 경우에 실제 의사결정자가 극대화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통합 소유일 때
$\Pi = 28x - x^2 + 20y - y^2 - xy$
일차조건은
$\frac{\partial \Pi}{\partial x} = 28 - 2x - y = 0$
$\frac{\partial \Pi}{\partial y} = 20 - 2y - x = 0$
따라서
$2x + y = 28, \quad x + 2y = 20$
이를 풀면 $x = 12, y = 4$이므로 $a = 4$이다.

분리 소유에 보상금 xy를 지급할 때 개발업체의 순이윤은
$\pi_d = 20y - y^2$
일차조건은
$\frac{d\pi_d}{dy} = 20 - 2y = 0$
따라서 $y = 10$이므로 $b = 1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통합 소유의 주택 수 $a = 4$는 맞지만, 분리 소유에서 보상금 xy가 개발업체 이윤의 $-xy$를 정확히 상쇄하므로 $b = 4$는 틀리다. 올바르게는 $a = 4, b = 10$이다.
② O: 통합 소유에서는 총이윤을 함께 극대화하므로 $a = 4$가 되고, 분리 소유에서 보상금이 있으면 개발업체의 순이윤이 $20y - y^2$가 되어 $b = 10$이 된다.
③ X: 분리 소유에서 보상금을 반영하면 b는 10이어야 하므로 $b = 4$가 틀리다. 또한 통합 소유의 연립 일차조건을 풀면 $a = 6$이 아니라 $a = 4$가 나온다. 올바르게는 $a = 4, b = 10$이다.
④ X: 분리 소유에서 보상금을 반영한 $b = 10$은 맞지만, 통합 소유의 최적 주택 수는 $a = 6$이 아니라 $a = 4$이다. 올바르게는 $a = 4, b = 10$이다.

오답 포인트

보상금 xy를 지급한다는 문장을 보고도 개발업체 이윤에서 $-xy$를 그대로 남겨 두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또 통합 소유에서는 y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총이윤을 기준으로 x, y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a를 잘못 계산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합 소유가 나오면 관련 기업의 이윤을 모두 합쳐 총이윤을 만든 뒤 모든 선택변수에 대해 동시에 미분한다. 보상금이나 이전지출이 나오면 해당 기업의 순이윤에서 비용과 수입이 어떻게 상쇄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최적화를 진행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통합 소유는 총이윤 동시극대화, 완전보상은 피해기업 이윤의 외부효과 항 상쇄라는 구조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1. 완전경쟁 기업, 독점적 경쟁 기업, 독점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균형하에서, 완전경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한계수입이나 한계비용과 동일한 반면, 독점적 경쟁 기업과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한계수입이나 한계비용보다 크다.

② 완전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선인 반면, 독점적 경쟁 기업과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③ 장기균형하에서, 완전경쟁 기업과 독점적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독점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④ 장기균형하에서,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은 0인 반면, 독점적 경쟁 기업과 독점 기업의 이윤은 0보다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 독점적 경쟁, 독점의 가격 결정, 수요곡선, 진입장벽, 장기이윤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경쟁은 개별 기업이 가격수용자로서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장기에는 자유진입으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은 차별화된 상품을 파는 다수 기업 시장으로 기업별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에는 자유진입으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독점은 진입장벽이 있어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우하향 수요곡선을 마주하고 장기에도 경제적 이윤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가격이 한계수입과 같고,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이므로 균형에서 가격은 한계비용과도 같아진다. 반면 독점적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은 우하향 수요곡선 때문에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크고, 이윤극대화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으므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도 크다.

② O
완전경쟁기업의 개별 수요곡선은 시장가격에서 완전탄력적이어서 수평선이다. 독점적 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은 모두 스스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격설정자이므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③ O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은 장기적으로 자유진입과 자유퇴출이 가능하므로 진입장벽이 없다고 본다. 독점시장은 법적 보호, 규모의 경제, 핵심 자원 통제 등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독점적 경쟁 기업과 독점 기업의 이윤은 0보다 크다"이다. 독점적 경쟁은 상품차별화가 있어도 자유진입이 가능하므로 장기에는 초과이윤이 사라져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올바르게는 "장기균형에서 완전경쟁기업과 독점적 경쟁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0이고, 독점기업은 진입장벽이 있으면 0보다 큰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독점적 경쟁을 이름만 보고 독점과 같은 부류로 묶어 장기이윤도 플러스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상품차별화 여부가 아니라 장기에서 자유진입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구조 비교 문항에서 장기이윤이 나오면 먼저 진입장벽 유무를 본다. 자유진입이 가능하면 초과이윤이 사라져 경제적 이윤이 0이 되고, 진입장벽이 있으면 경제적 이윤이 유지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장기이윤은 진입이 결정한다. 완전경쟁 0, 독점적 경쟁 0, 독점은 진입장벽이 있으면 플러스이다.

NoteBase

문 12. A대학 경제학과는 2017년도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현재 취업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40명은 취업했으며 20명은 대학원에 등록하여 재학 중이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취업준비와 진학준비를 하고 있는 졸업생은 각각 20명과 10명이었다. 나머지 10명은 실업자로 분류되었다. A대학 경제학과의 2017년도 졸업생 100명이 모두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될 때, 이들의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① 실업률: 20%, 고용률: 40%, 경제활동참가율: 40%

② 실업률: 20%, 고용률: 40%, 경제활동참가율: 50%

③ 실업률: 30%, 고용률: 30%, 경제활동참가율: 40%

④ 실업률: 30%, 고용률: 30%, 경제활동참가율: 5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한 뒤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전체 100명, 취업자 40명, 대학원 재학 20명, 취업준비 20명, 진학준비 10명, 실업자 10명이다.
구해야 할 값: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다.
주의할 조건: 문제에서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은 나머지 10명뿐이므로 취업준비자와 진학준비자는 실업자에 더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이다.
고용률은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100명 전체가 생산가능인구라고 했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40명과 실업자 10명을 합한 50명이다.
2. 실업률은 10/50 × 100 = 20%이다.
3. 고용률은 40/100 × 100 = 40%이다.
4. 경제활동참가율은 50/100 × 100 = 5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실업률 20%와 고용률 40%는 맞지만 경제활동참가율 40%라는 부분이 틀렸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40명과 실업자 10명을 합한 50명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올바르게는 실업률 20%, 고용률 40%, 경제활동참가율 50%이다.
② O: 실업률 20%, 고용률 40%, 경제활동참가율 50%가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경제활동인구를 50명으로 잡으면 세 비율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③ X: 실업률 30%, 고용률 30%, 경제활동참가율 40%라는 부분이 모두 틀렸다. 실업자는 10명이므로 실업률은 20%이고, 취업자는 40명이므로 고용률은 40%이며, 경제활동인구는 50명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올바르게는 실업률 20%, 고용률 40%, 경제활동참가율 50%이다.
④ X: 경제활동참가율 50%는 맞지만 실업률 30%와 고용률 30%라는 부분이 틀렸다. 실업률은 10/50으로 20%이고 고용률은 40/100으로 40%이다. 올바르게는 실업률 20%, 고용률 40%, 경제활동참가율 50%이다.

오답 포인트

취업준비자와 진학준비자를 곧바로 실업자로 넣는 혼동이 함정이다. 이 문제는 이미 나머지 10명을 실업자로 따로 제시했으므로, 준비 중인 30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용지표 문제는 먼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한 다음 경제활동인구를 확정하고, 그 뒤에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를 각각 확인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NoteBase

문 13.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min\{2L, K\}$이다. 고정비용이 0원이고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가격이 각각 2원과 1원이라고 할 때, 기업 A가 100단위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총비용은? (단,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이다)

① 100원

② 200원

③ 250원

④ 500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에서 비용최소 투입조합을 찾아 총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생산함수는 $Q = \min\{2L, K\}$이고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가격은 각각 2원과 1원이다.
구해야 할 값: $Q = 100$일 때의 총비용이다.
주의할 조건: $\min\{2L, K\}$형이므로 두 투입의 유효산출 부분이 같아지는 점에서 비용이 최소가 된다.

사용할 공식

총비용은 $TC = 2L + K$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노동 1단위 가격이 2원이고 자본 1단위 가격이 1원이므로 각 투입량에 가격을 곱해 더하면 총비용이 된다. 또한 완전보완재형 생산함수이므로 비용최소점에서는 $2L = K = Q$가 성립한다.

계산 과정

1. $Q = 100$을 생산하려면 $\min\{2L, K\} = 100$이어야 한다.
2.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초과투입이 없어야 하므로 $2L = K = 100$이다.
3. 따라서 $L = 50, K = 100$이다.
4. 총비용은 $TC = 2 \times 50 + 100 = 2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00원은 노동비용 100원만 보거나 자본비용 100원만 본 값이다. 총비용은 두 투입비용을 모두 더해야 하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총비용이 1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총비용은 200원이다'이다.
② O: 비용최소 투입조합은 $L = 50, K = 100$이고 총비용은 200원이다. 따라서 2번이 맞다.
③ X: 250원은 필요한 산출량 100을 넘는 노동이나 자본을 불필요하게 더 투입한 경우의 비용이다. 완전보완재형에서는 초과투입이 산출을 늘리지 않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총비용이 25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비용최소 총비용은 200원이다'이다.
④ X: 500원은 생산함수의 보완관계를 무시하고 투입을 과도하게 잡은 값이다. $Q = 100$을 만드는 최소 필요투입은 $L = 50, K = 100$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총비용이 5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총비용은 200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완전보완재형에서는 한 투입만 늘려도 산출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2L = 100$ 또는 $K = 100$만 맞추고 다른 한쪽 비용을 빼먹으면 100원이 나오므로, 반드시 두 조건을 함께 맞춘 뒤 총비용을 합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보완재 계산형은 먼저 $\min\{\cdot\}$ 안의 유효투입을 정답 산출량과 같게 놓고, 비용최소 조건에서 초과투입을 없앤 뒤, 각 투입가격을 곱해 총비용을 더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Q = \min\{aL, bK\}$형은 비용최소점에서 $aL = bK = Q$를 맞춘 뒤 총비용을 계산한다.

NoteBase

문 14. 갑국과 을국으로 이루어진 세계경제가 있다.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갑국은 노동 200단위와 자본 60단위, 을국은 노동 800단위와 자본 14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두 재화 X와 Y를 생산할 수 있는데, X는 노동집약적 재화이고 Y는 자본집약적 재화이다. 헥셔-올린 모형에 따를 때 예상되는 무역패턴은? (단, 노동과 자본은 양국에서 모두 동질적이다)

① 갑국은 Y를 수출하고 을국은 X를 수출한다.

② 갑국은 X를 수출하고 을국은 Y를 수출한다.

③ 갑국과 을국은 X와 Y를 모두 생산하며, 그중 일부를 무역으로 교환한다.

④ 갑국과 을국은 X와 Y를 모두 생산하며, 각자 자급자족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국의 상대적 요소부존비율과 재화의 요소집약도를 연결해 헥셔-올린 모형의 수출 방향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갑국의 노동/자본 비율은 200/60으로 약 3.33이고, 을국의 노동/자본 비율은 800/140으로 약 5.71이다.
따라서 을국이 상대적으로 노동풍부국이고 갑국이 상대적으로 자본풍부국이다.
X는 노동집약재이고 Y는 자본집약재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핵심 개념

헥셔-올린 모형은 각국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고 본다.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를,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를 수출하는 방향으로 비교우위가 형성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절대량이 아니라 노동/자본의 상대적 비율을 비교해야 한다.
을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므로 X에 비교우위가 있고, 갑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므로 Y에 비교우위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국은 자본풍부국이므로 자본집약재 Y를 수출하고, 을국은 노동풍부국이므로 노동집약재 X를 수출한다.
② X: 수출 방향을 거꾸로 잡았다. 틀린 표현은 "갑국은 X를 수출하고 을국은 Y를 수출한다"이고, 올바르게는 "갑국은 Y를 수출하고 을국은 X를 수출한다"이다.
③ X: 헥셔-올린 모형에서는 양국이 두 재화를 모두 생산할 수는 있어도, 무역패턴을 묻는 문항의 정답은 어느 나라가 무엇을 수출하는지의 방향이어야 한다. 틀린 표현은 수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를 무역으로 교환한다"로 답을 끝낸 점이고, 올바르게는 "갑국은 Y를 수출하고 을국은 X를 수출한다"이다.
④ X: 자급자족은 무역이 없는 상태이므로 헥셔-올린 모형이 예측하는 무역패턴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각자 자급자족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양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절대적인 노동량과 자본량만 보고 을국을 모든 재화의 생산 우위국으로 보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총량이 아니라 상대적 요소부존비율과 재화의 요소집약도를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국의 노동/자본 또는 자본/노동 비율로 상대적 요소풍부도를 정하고, 다음에 각 재화의 요소집약도를 확인한 뒤, 풍부한 요소를 많이 쓰는 재화의 수출국을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헥셔-올린은 풍부한 요소를 많이 쓰는 재화를 수출한다는 모형이다.

NoteBase

문 15. A 산업 부문의 노동시장에서 균형 임금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단,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ㄱ. A 산업 부문의 노동자에게 다른 산업 부문으로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대되었다.
ㄴ. A 산업 부문의 노동자를 대체하는 생산기술이 도입되었고, A 산업 부문으로의 신규 취업 선호가 증대되었다.
ㄷ. A 산업 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고, 노동자 실업보험의 보장성이 악화되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보고 균형임금의 상승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노동수요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이 커지면 우측으로, 작아지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노동공급은 해당 산업에서 일하려는 유인이 커지면 우측으로, 다른 산업으로 빠질 유인이 커지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균형임금은 노동수요 우측 이동 또는 노동공급 좌측 이동에서 상승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ㄱ만 옳다. 다른 산업으로의 취업기회 확대는 A 산업 노동공급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임금을 올리고, 노동자 생산성 증대는 노동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켜 임금을 올린다.
2번 X: 이 선택지의 틀린 부분은 ㄴ을 옳은 진술로 포함한 점이다. 노동절약적 생산기술 도입은 A 산업 노동수요를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A 산업 신규 취업 선호 증대는 노동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균형임금을 낮춘다. 올바르게는 ㄴ은 옳지 않다.
3번 X: 이 선택지의 틀린 부분은 ㄷ을 옳은 진술로 포함한 점이다. A 산업 재화가격 하락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을 낮춰 노동수요를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실업보험 보장성 악화는 노동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균형임금을 낮춘다. 올바르게는 ㄷ은 옳지 않다.
4번 X: 이 선택지의 틀린 부분은 ㄴ과 ㄷ을 모두 옳은 진술로 포함한 점이다. ㄴ과 ㄷ은 모두 임금을 낮추는 방향의 변화이므로 함께 묶어도 정답 조합이 될 수 없다. 올바르게는 ㄱ만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생산성 증대와 기술도입을 같은 방향으로 보거나, 실업보험 보장성 악화를 노동공급 감소로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각 사건이 노동수요를 바꾸는지 노동공급을 바꾸는지부터 나누면 함정이 줄어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건마다 먼저 노동수요 요인인지 노동공급 요인인지 분리한 뒤, 수요 우측·공급 좌측이면 임금 상승, 수요 좌측·공급 우측이면 임금 하락으로 판정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생산성 상승과 산출물 가격 상승은 수요 우측, 다른 일자리 확대는 공급 좌측, 취업 선호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는 공급 우측이다.

NoteBase

문 16. 어느 재화의 가격이 1천 원에서 1% 상승하면 판매 수입은 0.2% 증가하지만, 5천 원에서 가격이 1% 상승하면 판매 수입은 0.1% 감소한다. 이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수요의 법칙이 적용된다)

① 가격이 1천 원에서 1% 상승 시,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② 가격이 5천 원에서 1% 상승 시,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③ 가격이 1천 원에서 1% 상승 시, 수요량은 0.2% 감소한다.

④ 가격이 5천 원에서 1% 상승 시, 수요량은 1.1%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판매수입과 가격탄력성의 관계를 이용해 수요량 변화율과 탄력성 구간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1천 원 구간에서는 가격이 1% 상승할 때 판매 수입이 0.2% 증가한다.
주어진 값: 5천 원 구간에서는 가격이 1% 상승할 때 판매 수입이 0.1% 감소한다.
구해야 할 값: 각 구간의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탄력성이다.
주의할 조건: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사용할 공식

판매수입은 $TR = P \times Q$ 이므로 소폭 변화율에서는 $\%\Delta TR \approx \%\Delta P + \%\Delta Q$ 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가격 변화율과 판매수입 변화율을 함께 주었으므로 수요량 변화율을 바로 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1천 원 구간에서는 판매수입 변화율이 0.2%이므로 $0.2 = 1 + \%\Delta Q$ 이고, 따라서 수요량은 0.8% 감소한다.
2. 가격이 1% 오를 때 수요량이 0.8% 감소하므로 이 구간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0.8이고 비탄력적이다.
3. 5천 원 구간에서는 판매수입 변화율이 -0.1%이므로 $-0.1 = 1 + \%\Delta Q$ 이고, 따라서 수요량은 1.1% 감소한다.
4. 가격이 1% 오를 때 수요량이 1.1% 감소하므로 이 구간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1.1이고 탄력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천 원 구간에서는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0.8% 감소하므로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0.8이다. 틀린 표현은 '탄력적이다'이며, '비탄력적이다'로 고쳐야 맞다.
② X: 5천 원 구간에서는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1.1% 감소하므로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1.1이다. 틀린 표현은 '비탄력적이다'이며, '탄력적이다'로 고쳐야 맞다.
③ X: 1천 원 구간의 판매수입 증가율 0.2%는 수요량 감소율이 아니다. 가격이 1% 올랐는데 수입이 0.2% 늘었으므로 수요량은 0.8% 감소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0.2% 감소한다'이며, '0.8% 감소한다'로 고쳐야 맞다.
④ O: 5천 원 구간에서는 가격이 1% 올랐는데 판매수입이 0.1% 감소했으므로 수요량 감소폭이 가격 상승폭보다 더 크다. 따라서 수요량은 1.1%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탄력적이다'와 ②의 '비탄력적이다'는 판매수입의 증감과 탄력성의 관계를 거꾸로 연결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가격 인상 때 판매수입이 늘면 비탄력적이고, 판매수입이 줄면 탄력적이다. ③은 판매수입 변화율 0.2%를 그대로 수요량 변화율로 착각하게 만드는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이 오를 때 판매수입이 늘면 비탄력적이고, 판매수입이 줄면 탄력적이라고 먼저 판단한다. 그다음 $\%\Delta Q \approx \%\Delta TR - \%\Delta P$ 로 수요량 변화율을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가격 1% 상승 때 수입이 증가하면 비탄력, 감소하면 탄력이며, 수요량 변화율은 판매수입 변화율에서 가격 변화율을 뺀 값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7. 기대인플레이션과 자연실업률이 부가된 필립스(Phillips)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은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과 같다.

②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은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다.

③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은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0과 같다.

④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일치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포함된 필립스 곡선에서 실제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가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차이로 연결된다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기대인플레이션이 반영된 필립스 곡선은 실제 인플레이션 π, 기대인플레이션 π^e, 실업률 u, 자연실업률 u_n의 관계를 $\pi = \pi^e - \alpha(u - u_n)$로 설명한다.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으면 $u - u_n = 0$이므로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같아진다.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으면 $u - u_n > 0$이므로 실제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아진다.

선지별 해설

1번 O: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으면 $u = u_n$이므로 식에서 $\pi = \pi^e$가 된다. 따라서 실제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과 같다.
2번 O: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으면 $u - u_n > 0$이므로 $\pi = \pi^e - \alpha(u - u_n)$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아진다.
3번 X: 틀린 부분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0과 같다"이다.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을 때 성립하는 것은 $\pi = \pi^e$라는 관계이지, 기대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은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과 같다"이다.
4번 O: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하면 예상 착오가 없어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실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자연실업률에서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같아진다는 명제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이 된다는 명제로 바꾸면 틀린다. ③은 "같다"와 "0이다"를 바꿔치기한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u와 u_n의 크기를 비교한 뒤, $u = u_n$이면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같고, $u > u_n$이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낮다고 판단한다. 값이 같다는 말과 값이 0이라는 말을 구분하면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자연실업률에서는 $\pi = \pi^e$이고, 자연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높으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낮다.

NoteBase

문 18. 다음 중 솔로우(Solow)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② 저축률이 상승하면 정상상태(steady state)의 일인당 자본은 증가한다.

③ 자본투입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④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면 정상상태의 일인당 자본이 증가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저축률, 인구증가율, 자본의 한계생산이 정상상태의 일인당 자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상상태의 일인당 자본은 일인당 투자가 감가상각과 인구증가에 따른 자본희석을 막을 만큼만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저축률은 투자량을 늘려 정상상태의 일인당 자본을 높이지만,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때문에 자본축적만으로 일인당 산출이 영구히 성장하지는 않는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같은 투자로 더 많은 노동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일인당 자본은 낮아진다.

선지별 해설

1번: X. 솔로우 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므로 자본 투입 증가만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틀린 표현은 "지속적으로 성장"이다. 올바르게는 "자본 투입 증가는 과도기적으로는 성장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성장은 기술진보가 있어야 가능하다"이다.
2번: O. 저축률이 상승하면 투자곡선이 위로 이동하므로 정상상태의 일인당 자본이 증가한다. 저축률 상승은 정상상태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3번: X. 자본투입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일정하게 유지된다"이다. 올바르게는 "자본투입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이다.
4번: X.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면 자본희석이 커져 정상상태의 일인당 자본은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면 정상상태의 일인당 자본은 감소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저축률 상승이 정상상태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과 장기 성장률 자체를 영구히 높인다는 주장을 혼동하면 1번을 고르기 쉽다. 또한 자본축적이 많아질수록 생산도 계속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3번의 한계생산 체감 원리를 놓치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모형 선지는 먼저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저축률은 정상상태 수준을 높일 뿐 장기 지속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입하면 된다. 인구증가율은 일인당 자본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솔로우 모형은 저축률 상승이면 k^* 상승, 인구증가율 상승이면 k^* 하락, 자본축적만으로는 지속성장 불가이다.

NoteBase

문 19. 어느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Q_d = 200 - P$이고, 공급곡선 Q_s는 $P = 100$에서 수평선으로 주어져 있다. 정부가 이 재화의 소비자에게 단위당 2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눈 비효율성계수(coefficient of inefficiency)는? (단, P는 가격이다)

① $\frac{1}{8}$
② $\frac{1}{4}$
③ $\frac{1}{2}$
④ 1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탄력적 공급 아래에서 소비자 물품세가 부과될 때 초과부담과 조세수입을 구해 비효율성계수 =(초과부담)/(조세수입)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곡선은 $Q_d = 200 - P$, 공급곡선은 $P = 100$, 소비자에게 단위당 20원의 물품세가 부과된다.
구해야 할 값: 비효율성계수
주의할 조건: 공급이 수평이므로 생산자 수취가격은 100으로 유지되고, 소비자 지불가격만 120으로 상승한다.

사용할 공식

비효율성계수=초과부담조세수입
초과부담=(1)/(2)× 세금 × 거래량 감소분
조세수입=세금 × 세후 거래량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물품세가 거래량을 줄이면서 삼각형 모양의 초과부담과 직사각형 모양의 조세수입을 동시에 만들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세금 부과 전에는 $P = 100$이므로 $Q = 200 - 100 = 100$이다.
2. 소비자 물품세 20원이 붙으면 소비자 지불가격은 120이 되고, 세후 거래량은 $Q = 200 - 120 = 80$이다.
3. 거래량 감소분은 $100 - 80 = 20$이다.
4. 초과부담은 $\frac{1}{2} \times 20 \times 20 = 200$이다.
5. 조세수입은 $20 \times 80 = 1600$이다.
6. 따라서 비효율성계수는 $\frac{200}{1600} = \frac{1}{8}$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frac{1}{8}$은 (초과부담 200)/(조세수입 1600)으로 계산한 정확한 값이다.

② X
$\frac{1}{4}$는 초과부담 계산에서 삼각형의 $\frac{1}{2}$를 빠뜨려 $20 \times 20 = 400$으로 잡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비효율성계수는 $\frac{1}{4}$가 아니라 $\frac{1}{8}$이다.

③ X
$\frac{1}{2}$는 조세수입의 분모를 세후 거래량 80이 아니라 거래량 감소분 20으로 잘못 잡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조세수입은 실제 거래된 80단위에 대해 걷히므로 값은 $20 \times 80 = 1600$이고, 비효율성계수는 $\frac{1}{2}$가 아니라 $\frac{1}{8}$이다.

④ X
1은 초과부담과 조세수입을 같은 크기로 본 오답이다. 초과부담은 삼각형 면적 200이고 조세수입은 직사각형 면적 1600이므로 두 값은 같지 않다. 비효율성계수는 1이 아니라 $\frac{1}{8}$이다.

오답 포인트

완전탄력적 공급에서는 세금이 전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는 점, 초과부담은 삼각형이라 $\frac{1}{2}$가 붙는다는 점, 조세수입은 세후 거래량에 세율을 곱한다는 점을 한 번에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물품세 계산형은 세전 균형수량을 먼저 구하고, 세금만큼 바뀐 소비자 가격으로 세후 거래량을 다시 계산한 뒤, 거래량 감소분으로 초과부담을 구하고 세후 거래량으로 조세수입을 구해 비율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효율성계수는 (초과부담)/(조세수입)이며, 초과부담은 세율과 거래량 감소분으로 만드는 삼각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20. 어느 경제에서 총생산함수는 $Y = 100\sqrt{N}$이고, 노동공급함수는 $N = 2{,}500\left(\frac{W}{P}\right)$이며, 생산가능인구는 3,000명이다. 이 경제에서는 실질임금이 단기에는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제의 단기와 장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W는 명목임금, P는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① 장기균형에서 취업자 수는 2,500명이다.

② 장기균형에서 명목임금이 10이라면 물가수준은 10이다.

③ 장기균형에서 실업자는 500명이다.

④ 기대치 않은 노동수요 감소가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노동수요를 $MPL = W/P$에서 구하고, 노동공급과 일치시키는 장기균형의 실질임금과 고용량을 계산한 뒤 생산가능인구와 실업자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생산함수는 $Y = 100\sqrt{N}$이다.
노동공급함수는 $N = 2{,}500(W/P)$이다.
생산가능인구는 3,000명이다.
단기에는 실질임금이 경직적이고, 장기에는 실질임금이 신축적이다.

사용할 공식

노동수요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MPL = W/P$에서 나온다.
$MPL = \frac{dY}{dN} = \frac{50}{\sqrt{N}}$
문제는 장기균형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묻고 있으므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을 같게 두어 균형을 구한다.

계산 과정

1. 노동수요는 $W/P = 50/\sqrt{N}$이다.
2. 노동공급은 $N = 2{,}500(W/P)$이므로 $W/P = N/2{,}500$이다.
3. 두 식을 같게 두면 $N/2{,}500 = 50/\sqrt{N}$이고, $N\sqrt{N} = 125{,}000$이다.
4. $N = 2{,}500$이면 $\sqrt{N} = 50$이므로 식을 만족한다. 따라서 장기균형 고용은 2,500명이다.
5. 이때 실질임금은 $W/P = 2{,}500/2{,}500 = 1$이다.
6. 생산가능인구 3,000명 중 실제로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2,500명이므로 500명은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은 인원이다. 장기균형에서는 노동시장이 청산되므로 비자발적 실업은 0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장기균형에서 고용량은 2,500명이므로 취업자 수가 2,500명이라는 진술은 옳다.

② O
장기균형 실질임금이 $W/P = 1$이므로 명목임금 $W = 10$이면 물가수준 $P = 10$이다.

③ X
장기균형에서는 실질임금이 조정되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 3,000명 중 500명은 노동을 공급하지 않는 인원일 뿐 실업자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는 500명"이다. 올바르게 고치면 "장기균형에서 취업자는 2,500명이고 실업자는 0명이다"가 된다.

④ O
예기치 않은 노동수요 감소가 발생하면 단기에는 실질임금이 경직적이어서 기존 실질임금에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생산가능인구 3,000명과 취업자 2,500명의 차이 500명을 곧바로 실업자로 잡으면 틀린다. 실업자는 현재 임금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고, 이 문제의 500명은 애초에 노동공급곡선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인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학파 노동시장 문제는 먼저 $MPL = W/P$로 노동수요를 만들고, 이를 노동공급과 같게 두어 장기균형의 W/P와 N을 구한다. 그다음 인구와 고용의 차이를 바로 실업으로 보지 말고, 노동공급 여부와 노동시장 청산 여부를 따져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장기균형에서는 실질임금이 조정되어 노동시장이 청산된다. 생산가능인구-취업자=실업자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을 먼저 구분한다.

NoteBase